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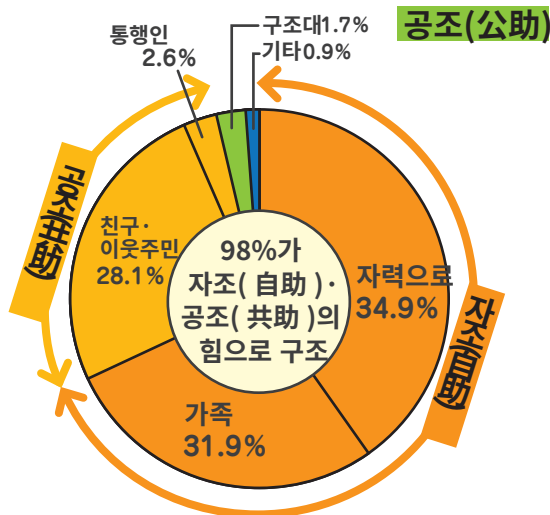
제 4 장

지역의 방재 활동에 참가합시다

● 자조(自助) · 공조(共助)가 생명을 구한다!

한신·아와지 대지진 당시 생매장된 사람들을 누가 구출해 주었을까요?

한신·아와지 대지진 때 생매장된 후 구조된 사람들 중 98%가 자조(自助)와 공조(共助)의 힘으로 구출되었습니다. 한편, 공적 기관에 의해 생존한 채 구출된 사람은 불과 1.7%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.



(사)일본화재학회: 「효고현 남부 지진에서의 화재에 관한 조사보고서」에서 인용



재해 피해를 경감하려면 3자간 연계가 중요합니다.

자조(自助): 자기(가족)의 생명을 자기(가족)가 지킨다.

공조(共助): 지역 주민들이 서로 도와준다.

공조(公助): 국가, 시 등 행정기관이 대책을 강구한다.

내가 가진 힘을 발휘하자

동네에는 여러 가지 기술과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, 동네를 깊이 파악하고 있는 사람 등 여러 사람들이 삽니다. 재해 시에는 이들이 갖고 있는 기술과 장비, 지혜 등이 역할을 합니다. 당신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. 유사시에 할 수 있는 일을 이웃끼리 이야기 나눠 보세요. 또한 차량용 잭, 지게차, 손수레나 건설 기계 등을 보유한 사업체가 가까이 있는 경우 재해 시에 장비를 제공해 주도록 미리 요청합시다.



<일손과 시간을 제공>

자택이재민·대피소·지역에서 작업을 할 때 청소·운반·배급·식사 무료 제공 등 노무 제공



<물자, 기자재를 제공>

구원 물자, 구조·복구용 기자재를 제공



<장소를 제공>

일시 대피 장소, 자원봉사자 휴게소, 물자 창고, 주차장 등의 제공



<기술과 지혜를 제공>

전문 지식, 기자재 사용 방법 등 노하우 제공



<정보 통신이 가능>

인터넷 등 필요한 정보를 교환



<기타>

레크리에이션 지도, 어린이 돌봄 등

